

3》유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6》국제캠퍼스 학생·버스기사 간담회



2016학년도 서울, 국제캠퍼스 하계 계절학기 개설안내

개설과목 확인 : 2016.05.04
수강신청 기간 : 2016.06.14 10:30 ~ 06.15 17:00
등록금 납부기간 : 2016.06.16 ~ 06.20 16:00
수업기간 : 2016.06.22(수) ~ 07.13(수)

Newsmaker

약학대학에 1억 기부한
82학번 문경, 김지연 부부



서울캠 SPACE21 사업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SPACE21 사업이 한창이다. SPACE21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행복기숙사 공정률은 31%, 전체 사업은 22%이다. 서울캠 대운동장에는 간호·이과·한의과대학이 들어설 예정이며 행복기숙사는 2017년 2월 말, 전체 사업은 2017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진=차관호 기자)

프라임사업 최종 심사에서 탈락

프라임사업 결과

박기윤 기자 kyoony7230@khu.ac.kr

우리학교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PRIME) 사업에 최종 탈락했다. 3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학교가 지원했던 총 정원 10%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대형(사회수요 선도대학)사업에는 건국대, 숙명여대, 한양대(ERICA) 등 수도권 대학 3개 대학을 포함해 총 9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이화여대 등이 신청한 소형 유형에는 12개교가 선정됐다.

우리학교는 작년 11월부터 프라임 사업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공식적으로 4회에 걸친 소통위원회와 그 외에도 수십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구성원들과 소통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부족한 정보 공

유와 구성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더뎌진 바 있다. 우리학교는 1단계 서면평가를 통해 지난달 진행된 2단계 대면 평가까지 마쳤지만 최종 선정에서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

일부에서는 우리대학이 탈락한 것을 두고, 선정 대학 대비 정원 이동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점, 구성원 합의 과정에서의 갈등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총학생회와 갈등이 커진 이화여대가 소형 사업에 선정된 것을 볼 때 결정적인 이유로 들긴 어렵다는 것도 의견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6개월 이상 전체 구성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만큼 '탈락'으로 인한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조정, 학문단위 개편 등 평상시라면 하나하나의 사안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만한 무게

의 이슈들이 즐비했던 만큼 계획서 상에 담긴 내용이 실제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거리다. 대학 측은 당초 "프라임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내 구성원들에게서도 속속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원이동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주희(사학 2012)회장은 "정책투표 과정에서 밝혀졌듯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구성원 간의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해서 함께 장기적인 학교의 발전방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김병경(체육학 2009)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개월간 프라임사업 하나님만 보고 달려왔는데 좋은 결과를 빚지

못해 아쉽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직원노조의 송혜경 노조위원장은 "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침체 되지 않고 다시 새롭게 논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다"며 "구성원 간 긴밀한 소통으로 더 나은 결과를 기대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교수의회 김홍두 (정보전자신소재공학)의장은 결과에 대해 "학교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 구성원들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댓글에는 교육부의 불투명한 선정절차를 꼬집거나 캠퍼스간 균형발전을 요구, 그리고 계획안 자체의 부실함을 꼬집는 이용자의 의견도 있었다. 대학본부 측은 4일 현재 프라임사업 탈락과 관련하여 원인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계획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약사가 투약도 가능해서 자격증을 지닌 선배들이 와서 함께 활동했다"는 이들 부부는, "공부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하면서, 선배들과의 교류도 할 수 있었던 동아리 활동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학창시절을 회상했다.

이들 부부에게 우리 학교는 큰 의미가 있다. 문경 동문은 "약사가 되기 위한 기반을 경희대학교에서 다렸고 이후 사회생활, 생계부양을 하며 이렇게 좋은 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금까지의 자리에 있게 해 준 우리학교에 감사표했다. 또한 김지연 동문은 "당시 가정형편이 어려웠는데 장학금 덕분에 고생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해준 학교에 항상 감사했다"며 "학교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 뜻 깊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라고 미소를 지었다.

이들은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문 동문은 "저는 졸업한 다음에야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다보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직업의 선택권이 다양해서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후배들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졸업 이후의 삶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라는 문 동문은 바람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매학기 후배들에게 약사가 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후배들과의 교류도 꾸준히 하고 있다"며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표했다.

이어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순간을 열심히, 신나게 즐겼으면 좋겠다"는 이들 부부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기부를 할 생각"이라며 모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⑯

윤원근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자본주의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돈이 최고라는 생각인가? 지금 우리는 이러한 통념에 도전한 한 인물을 만나볼 것이다. 막스 베버. 그에 의하면, 인간은 '의미추구 존재'이며, 자본주의는 욕망추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의미추구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다.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이러한 그의 생각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의 동력은 자본의 크기보다는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에 있다. 자본주의 정신이 존재하면 자



막스 베버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의미추구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다

본이 생성되고 화폐가 공급되어 그 정신을 수행하는 수단 노릇을 하지 만, 자본이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 정신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정신은 '노동의 합리적 조직'이다. 그것은 다섯 가지로 설명된다. ① 노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② 정직하고 근면한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다. ③ 감정의 동요에 따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경멸하고, 이성으로 잘 계획해서 실천하는 생활을 한다. ④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쾌락, 행복, 즐거움을 포기하고 쓸데없는 휴식과 게으름을 물리친다.

다. ⑤ 돈을 모으기 위해 절약하고 겸손하게 생활한다.

자본주의 정신은 왜 서구에서만 나타났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베버는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에 많은 영향을 준 칼뱅파의 '예정 교리'에 주목했다. 예정 교리는 서구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제공했다. 이 새로운 삶의 의미가 자본주의 정신의 원천이었다. 예정 교리는 절대주권자인 신이 자신의 뜻대로, 일부 사람만 구원되도록 예정해 놓았다고 주장한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f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g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pPinterest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OYQ

구글플러스 '경희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인공지능과 인류문명의 미래

송경재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7면

